현대미 입은 전통불화 선보이다

조해종 불모, 9월 9~24일 통도사박물관 기획전시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조해종 작가가 9월 9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2층에서 열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불모 연당 조해종 작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작풍(作風)으로 과거와 현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 작품에서는 전통불화의 숭고한 장엄미를 선보일 뿐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친숙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33응신을 담은 도상에서는 시계를 차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이 군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고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운동복 입은 남성도 눈에 띈다.

조해종 불모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되 현대인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35년 동안 이어온 작품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는 전통불화와 비구상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중심으로 후불, 관음, 칠성, 관세음보살 42수, 화엄(비구상), 달마도, 문자도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은사인 故석정 스님의 작품을 사사한 흔적도 엿보인다. 조해종 불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이자 불화장이었던 석정 스님의 제자이며 이수자다. 조 작가는 인재 양성이라는 석정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불화 수업을 이어왔다.


관세음보살보문시현도 지본 채색(조해종 作, 100×80㎝).

조해종 불모는 "은사이신 석정 스님의 불화 초본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사스님은 저에게 '연꽃의 집'이란 뜻을 가진 연당(蓮堂)을 호(號)로 주셨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진하라는 뜻으로 삼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올바른 전통의 계승은 모든 면에서 녹록지 않지만 불화 조성은 저에게 수행이자 기도로, 모두가 밝아지고 법향(法香)이 가득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해종 작가는 이번 전시를 포함해 열 번의 개인전을 비롯, 100회가 넘는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금강산 신계사(후불탱)와 양산 통도사, 취운암, 반야암, 단양 대흥사, 화엄사 금정암, 군위 인각사, 지리산 백장암, 제천 강천사 등에서 불화 불사를 진행했다.

조 작가는 동국대 디자인미술학과(불교미술전공) 외래교수이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 강사,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초대작가다. 현재 문화재 수리기능자 모사공 심사위원, 부산 · 대구 · 경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불화 심사위원, (사)성보문화재 연구원 이사, (사)일섭문도회 부회장, (사)부산미술협회 불화 · 민화 분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 극락왕생 기원

서울 신림동 사건 피해자 부산 행복선원 신도 확인 "가석방 없는 징역" 촉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부산 행복선원에서 봉행됐다.

부산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8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49재를 봉행하고 피해자의 극락왕생과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길 기원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는 행복선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폭행' 근절을 위해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친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과 불자들.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한다. 어머니는 일주일 넘게 음식도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가족들도 트라우마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광 스님은 "피해자는 행복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신도분의 자녀로서 명절이나 방학 때면 항상 찾아와 인사하는 밝고 활기찬 법우였다"며 "무차별 폭력과 살인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복선원은 다음 날 부산 덕천로터리 일대에서 펼쳐진 캠페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제 부활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행복선원은 '묻지마 폭행'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안내문과 호신용 전자호루라기 300여 개를 배포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부산행복네트워크 회원, 지역단체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윤광 스님의 인사말 △피해자 추모 묵념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두 시간에 걸쳐 캠페인을 펼친 참가자들은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덕천로터리에서 지하철 숙등역을 거쳐 만덕동사거리까지 이동했다.

윤광 스님은 "'묻지마 폭행' 근절과 예방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섰다"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을 추모하며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선원은 지난달 25일 경내 법당에 신림동 공원 폭행 피해자를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 기원"

부산불교대학 · 화엄승가회, 제6회 합동 캠페인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8월 27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6회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매년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산시민을 위한 회향 한마당을 열어 점심공양을 올리고 음악회로 활기찬 하루를 선물했다.

행사는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진행하는 위령대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경로효 잔치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로 길놀이, 트로트 공연, 풍물놀이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부산어린이대공원을 돌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스님들은 어깨에 '살기좋은부산만들기'라는 문구를 새긴 띠를 두르고 곳곳을 방문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손팻말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사진〉



학장 범혜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파종하는 시작일 뿐"이라며 "사람은 생로병사하며 육도윤회를 거듭하는데 이번 생이 다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가장 강력한 업에 이끌려 다음 생을 받는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새기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 닮기 위해 노력하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락서암 백중 법문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사진〉이 백중을 맞아 "조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재불사에 앞장서는 락서암(주지 수월)은 8월 27일 관효 스님을 초청해 백중 법회를 봉행했다. 관효 스님은 이날 〈부모은중경〉 내용을 중심으로 "고아는 외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 부모가 없으면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외로움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게끔 정성으로 기도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며 "성내지 않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라고 강조했다.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도량이 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회복지법인 혜원 '26회 백일장' 개최

대상에 김가연 · 문지우 학생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은 8월 26일 혜원정사에서 '제26회 혜원 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글제는 운문부문 '쉼' '반려'가, 산문부문은 '개인주의' '기후변화'가 제시됐다. 당일 진행된 백일장 심사는 수필가이자 시인인 성전 스님과 문태준 시인, 김연수 · 변왕중 소설가가 담당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김가연(안양예술고), 산문부문 문지우(주감중)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그 외 부산시교육감상에 강민재(부산정보고), 정하율(양동초) 학생을 비롯해 총 2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반갑다"며 "여러분의 글을 보면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